



생각해봅시다



☞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 그러나 때로 우린,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몹시 실망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자신만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자책으로 한숨 짓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빛나고 있고 누구에게나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신은 결코 자신에게만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자신의 노력 여하에 대한 결과만 틀릴 뿐.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우리라면 아마도 더욱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 좋은생각/베스트&베스트〉

■ 공단 임직원 경조사

● 결혼을 축하합니다

- 보령지부 양승준 대리(2008. 5. 25)
- 마산지부 김성욱 주임(2008. 5. 25)
- 포항지부 이찬우 지부장 장남(2008. 5. 25)

●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울산지부 공태희 지부장 빙모(2008. 5. 26)



알리는 말씀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보내 주십시오.

연락처 → TEL 032-260-2226 / FAX 032-260-2275 / E-MAIL vicadpr@kst.or.kr